

읽을거리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파트너	조민영 님	
발제자	이승준 님	
시간표	[1] 19:40 오프닝 & 독후감 토크	[2] 20:10 북 토크
	[3] 21:20 쉬는 시간	[4] 21:35 북 토크
	[5] 23:00 마무리 발언	[6] 23:20 모임 끝!

공지사항	연결의 맥락: 이전 모임들과의 대화 지난 <리서치 하는데요> 모임에서 우리는 '일을 잘한다는 것'에서 프로의 감각을,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타인 이해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일하는 마음'에서는 일을 지속할 때 찾아오는 태도의 변화와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지속의 기술과 불완전함의 수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완벽한 리서치의 환상이 아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리서치의 의미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모임 이후에 아래 3권의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야마구치 슈, 일을 잘한다는 것 - 데이비드 브룩스, 사람을 안다는 것 - 제현주, 일하는 마음
------	---

북토크	Intro 매일 아침 5시 30분,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는 우리도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고 어찌어찌 꾸역꾸역 사용자를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남긴 흔적과 불만, 그들의 침묵과 불편함을 생각합니다. 하루키에게 달리기가 글쓰기의 전부가 아니듯, 우리에게 리서치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아닌 것'이 어떻게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루키가 전업 작가로서 글쓰기를 잘 해내기 위해 달리기를 하듯, 우리가 사용자 경험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것과 조금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독후감 공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문장과 다른 멤버의 문장 중 마음이 통한 부분을 나누어주세요. 나만의 달리기: 여러분의 리서치 역량을 기르는 '달리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나요?
-----	---

TREVARI

북토크

Book Talk 1 | 재능의 역설 -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재능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터져 나오고 싶을 때 저절로 분출해 버리고, 나을 만큼 다 나와 고갈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리서치에서의 '재능의 함정'

뛰어난 리서처들을 보면 때로 "저 사람은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재능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키의 통찰을 빌리면, 재능에만 의존하는 리서처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 **역설적 질문:** 여러분이 지금까지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리서치 스킬 중에서, 사실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 **실무 적용:** 하루키처럼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듯, 여러분만의 '리서치 루틴'이 있나요?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매일 조금씩 사용자를 이해하는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집중력의 재정의

하루키는 집중력을 "한정된 재능을 필요한 한 곳에 집약하는 능력"이라 정의했습니다. 리서치에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사용자 인터뷰에서 정말 중요한 1-2개의 질문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 수십 개의 지표 중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를 찾아내는 것
- 복잡한 사용자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pain point 하나를 명확히 하는 것

여러분은 언제 가장 선명한 집중력을 경험하시나요?

북토크

Book Talk 2 | 매일 아침 길 위에서 배운 것들 - 일의 균형감각

"얼마만큼, 어디까지 나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면 좋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휴양이 정당하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휴식이 되는가?"

리서치의 경계선들

하루키가 달리며 탐구한 질문들을 리서치 맥락으로 해석해 보면

- 엄격함 vs 융통성:** 리서치 방법론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할까요? 언제 규칙을 깨뜨려야 할까요?
- 깊이 vs 속도:** 완벽한 리서치를 위해 시간을 더 쓸 것인가, 아니면 빠른 피드백을 위해 불완전함을 감수할 것인가?
- 내부 vs 외부:** 언제는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언제는 직감을 믿어야 할까요?

실패한 리서치에서 기꺼이 배운 것

하루키가 "42킬로를 완주하지 못한 날"의 가치를 인정하듯, 우리도 "실패한 리서치"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정작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서 진짜 인사이트를 발견한 경험
- 가설이 완전히 빗나갔을 때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순간
- 데이터가 예상과 달랐을 때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된 경험

여러분의 가장 '실패한' 리서치가 실은 가장 큰 배움을 준 경험은 언제였나요?

(쉬는 시간 전에 잠시!)

번추위 선정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는 게 아쉬울 것 같다면 번개로 모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번개는 필수가 아니니, 멤버들끼리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자율적으로 진행해보세요.)

북토크

Book Talk 3 | 몸과 마음의 리서치 - 체화된 이해

"인간의 정신은 육체의 특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또는 반대로 정신의 특성이 육체의 형성에도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리서치의 몸 - 하루키에게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고의 도구였듯, 리서치도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 매일 사용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는 사이에 패턴을 읽는 직감이 생깁니다
- 인터뷰를 반복하다 보면 말 뒤에 숨은 진의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 가설이 틀렸던 경험이 쌓일수록 겸손해집니다

리서치가 경험을 설계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 일을 시작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이 생겼나요?
-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나요?
- 확신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었나요?

사용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이 '무지의 자각'이 더 나은 리서처로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북토크

Book Talk 4 | 완주의 새로운 정의 - 지속 가능한 불완전함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만큼의 충족감을 가지고 42킬로를 완주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는가"

완벽한 리서치에 대한 환상

"모든 사용자를 이해하겠다", "완벽한 솔루션을 찾겠다"는 생각은 마라톤에서 "세계기록을 깨겠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리서치의 특징

- 매번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 100% 확신할 수 없어도 최선의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질문하는 것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달리기를 완주하는 기준

하루키에게 "즐거운 완주"가 목표였듯,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리서치"의 기준을 정해볼까요?

- 공급자로서 간과했던 사용자의 문제를 새롭게 발견했을 때?
- 조직이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때?
- 나의 노력으로 제품(서비스)이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쉬워졌을 때?

북토크

Book Talk 5 | 위험을 자진해서 맡는다는 것

"위험스러운 일을 자진해서 맡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갈 만한 힘이 내 안에 아직 있었구나 하는 개인적인 기쁨이며 안도감"

언제나 존재하는 리서치의 불완전성

- 리서치를 시작했던 가설이 틀릴 위험
-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위험
- 리서치 결과가 조직의 기대와 다를 위험
- 데이터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할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질문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위험을 자진해서 맡았던" 리서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내 안의 힘"은 무엇이었나요?

Closing | 매일마다의 선택

하루키는 "달리기를 통해 소설 쓰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리서치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완벽함보다는 지속성, 재능보다는 시스템, 확신보다는 겸손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시죠.

마무리 토크

마무리 토크를 통해 오늘 대화를 되돌아 보아요.

1. 오늘 모임은 즐거웠나요?
2. 오늘 모임에서 머리가 땡! 했던 순간이 있다면?
3. 다음 모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무리 질문카드'를 사용하셔도 되어요!

- '마무리 질문카드'는 파트너 님(또는 진행자) 자리에 놓여있어요!
- '마무리 질문카드'를 한 장 뽑은 다음, 질문에 답해보아요.
- 답변이 끝나면 카드를 섞어서 오른쪽에 앉은 멤버에게 전달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

- 사진 촬영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모임방에 있는 삼각대로 다 함께 오늘을 기억할 사진 한 장 찍어보세요.



알림톡을 못 받았다면?

위 QR을 스캔해
접속해주세요!